

우리는 무엇에 **응답하라 1988** 빠져 살았나



다시 주목받는 1988년 영화·음악·도서

최근 1988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왼쪽 사진)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영화, 음악 등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영화 '영웅본색'의 주윤발처럼 이주시계를 입에 물어보는 등 1988년은 서울 올림픽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가 확장되던 시기였다. 당시 유행했던 영화, 가요, 책들을 살펴본다.

영화 1위 '다이하드'·에로영화 '매춘' 돌풍 최성수 '동행' 정수라 '환희' '가요 TOP10' 정상

■ 책		
순위	제목	저자
1	홀로서기	서정윤
2	마주보기	에리히 케스트너
3	접시꽃 당신	도종환
4	남부군	이태
5	꼬마철학자	알퐁스 도데
6	노마의 발견1	철학연구소
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8	우리 다 못다한 말은	이외수
9	사랑굿	김소혜
10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이해인

■ 영화		
순위	제목	관객수
1	다이하드	45만9413명
2	매춘	43만2609명
3	로보캅	38만60명
4	피라미드의 공포	37만4680명
5	지옥의 묵시록	30만5029명
6	투 문 정선	26만9108명
7	모던 타임즈	26만5590명
8	영웅본색 2	26만0486명
9	지젤	24만1353명
10	접시꽃 당신	23만7744명



'로보캅'

◇영화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영화연감(서울 관객 기준)에 따르면 1988년 한국 영화 흥행순위 1위에 에로영화 '매춘'(관객수 43만2609명)이 올랐다는 게 눈길을 끈다. 나영희, 김민희 주연의 '매춘'은 전두환 정권의 3S(Screen, Sports, Sex)정책에 의해 상봉세를 탄 에로영화 돌풍의 꼭지점이었다.

수많은 성인 관객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 영화를 보러다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지만 기대만큼 베드신이 약했다는 후문이다. '응답하라 1988'에서도 고등학생인 주인공들이 군복을 입고 물레 들어간 극장에 걸려있는 포스터가 '매춘'이었다.

외화 1위는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다이하드'(45만9413명·전체 1위)였다. 지난 2013년 5편까지 개봉된 이 영화는 거침없는 폭파신, 빠른 전개, 거친 총격신 등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실베스타 스톨온으로 대변되는 액션영화 장르에 브루스 윌리스는 거침없는 입담과 유머로 새로운 액션 캐릭터를 제시했다. 아직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브루스 윌리스의 모습이 정겹다.

3위는 폴 버호벤 감독의 '로보캅'(38만60명)이다. 마스크를 쓰고 연기한 탓에 정작 주연의 얼굴과 이름은 생소한 이 영화는 SF, 액션, 하이로봇을 섞어놓은 스토리와 비주얼로 인기를 끌었다. 기술 발전과 인간성 상실이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는 등 불거리에만 치중하는 최근 영화가 따라 할 수 없는 감성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52년만에 국내에서 개봉했던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전쟁영화에 길이 남을 '지옥의 묵시록' 등도 사랑을 받았다.

◇가요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걸어 줄 사람 있나" 당시 최고의 가요 순위 프로그램이었던 KBS 2TV '가

요톱10'를 살펴보면 최성수는 노래 '동행'으로 1988년 2월 초부터 5주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총 6주간 1위를 차지했다. 중간에 만해경(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에게 1위를 빼앗기긴 했지만 1988년 상반기는 누가 뭐래도 최성수가 대세였다.

최성수의 바통을 이어받은 가수는 '작은거인' 이선희였다. 이선희는 '나 항상 그대를'을 발표하며 '홀로된 사랑'으로 당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던 여운을 밀어냈다. 지금도 사랑받는 '나 항상 그대를'은 5월 두번째 주부터 5주 연속 1위에 오르며 이선희의 대표곡으로 꼽힌다.

이선희에 이어 사랑을 받은 가수는 '또다른 작은 거인' 전영록이었다. 전영록은 '저녁놀'로 통산 6주간 1위를 올랐다. 1988년을 통틀어 가장 사랑받았던 한 곡을 꼽으려면 단연 정수라의 '환희'다. 빠른 템포의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사랑을 받기 시작해 '저녁놀'을 밀어내고 통산 8주간 정상에 오른다.

◇책

교보문고가 1987년 12월 31일부터 1년간 연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집계해본 결과 시집이 나란히 1·2·3위를 차지하는 등 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윤의 '홀로서기'가 1위에 오른 가운데 에리히 케스트너의 '마주보기',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김소혜의 '사랑굿', 이해인의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등 시집 7권이 베스트셀러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고 시작하는 시 '홀로서기'는 개인적 사랑을 읊은 서정시로, 시집은 300만부 이상 판매되며 한국시문학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태의 소설 '남부군', 알퐁스 도데의 '꼬마철학자'(5위),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7위), 이규형의 '어른들은 몰라요'(11위)가 상위권에 오른 가운데 최근 가수 아이유의 제2해석으로 논란이 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동문학으로는 철학 동화 '노마의 발견'을 필두로 '선생님은 괴짜를 좋아해', '생각하는 어린이들', '노마네반 아이들' 등이 인기를 끈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연합뉴스



최성수 '후인'



도심 산사에서 休... 그리고, 다시 시작

광주 양동 광제사 21일 음악회

'잠시 쉬어가는 산사 음악회'

광주시 서구 양동 돌고개 인근에 자리한 도심 속 사찰 광제사에서 21일 오후 3시 가을 음악회가 열린다.

'다카포 in 休'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현악 7중주단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다카포(da capo)'는 음악 용어로 '다시 처음', '시작'을 의미한다.

광제사(光濟寺)는 올해 창건 12년이 됐다. 광제사의 대웅전은 예느회 신설 사찰 처럼 화려한 단청으로 꾸며져 있지 않다. 낡은 손때가 묻은 대웅전은 100여년 전 지어진 한옥이다. 유은학원을 설립한 고(故) 최선진 선생 소유 한옥을 그대로 옮겨와 기부를 통해 광제사가

됐다. 광제사는 계절마다 음악회를 열어왔다.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씨가 다녀갔고, (사)무지크바움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도 열렸다.

이번에 연주에 나서는 팀은 아홉 7중주단으로 이리나(플루트), 김현주·임보라(바이올린), 오다혜(비올라), 김난(첼로), 김윤아(콘트라베이스), 서은지(플루트)로 구성돼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선택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파헬렐의 '캐논',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중 '강강', 엔리코 모리코네의 영화 '시네마 천국' 중 '러브 테마',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짓가라ک 행진곡' 재즈 버전, '그리움만 쌓이네'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10-2167-99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칠순' 손영란 첫 개인전

17~19일 일곡도서관



서양화가 손영란 작가의 첫 개인전이 '꽃들에게 물어봐'를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일곡도서관 내 일곡갤러리에서 열린다.

손 작가의 칠순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아이리스, 국화, 장미, 동백, 매화 등 꽃을 소재로 한 3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교통사고로 신체 장애를 겪고 있는 손 작가는 불편한 손놀림이지만, 섬세한 붓터치와 화려한 색채를 통해 꽃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그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미소와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손씨는 한·러 수교 24주년 기념 50인 초대전, 뉴욕아트페스티벌 한미교류전, 모스크바 국립예술대학 초대전 등 국내외의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청조회 회원, 카톨릭 미협, 교회미술가연구회, 현대미협 추천작가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410-689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악독한 노예상인에서 회심하여
불멸의 찬송 'Amazing Grace'를 만든 성직자가 되기까지
인간구원의 감동드라마를 그린 영화 <프리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희망

프리덤

FREEDOM

이카데미시상식 남우조연상 <셀마>제러 맥과이어 | 쿠바 구딩 주니어 | <쇼뱅크 탈출> 윌리엄 새들러
자른 릴 데이빗 라쉬 베르나르도 포처 | 피터 쿠센스 감독 [CBS시네마의 첫 번째 수입 작품]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Amazing Grace'의 주인공인
<존 뉴턴> 목사의 감동실화!

11월 19일 CGV 독점 개봉

NAVER 프리덤